

# 가족에 재확인하는 동자승들

## 홍법사 제1회 동자승 가족 템플스테이 개최

지난 4년간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배출한 개구쟁이 동자승 천진 불들이 가족들과 함께 다시 모였다. 홍법사는 8월 22~23일 '제1회 동자승 가족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홍법사가 2005년부터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쳐간 17명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홍법사를 찾았다.

몇 년 사이 훌쩍 자란 동자승들은 오랜만에 만난 도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들도 그간 플라보게 달라진 홍법사 도량을 둘러보는 등 단기출가 당시의 추억을 되짚었다.

이들은 예전 동자승 단기출가 당시로 돌아가 조석예불 도량석 108배 발우공양 풀 뽕기 율력 등으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동련이사장 지현이 신실한 우리가족 소개하기, 가족간 관계치유, 주지스님과 추억회상 시간, 가족미술치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재확인했다.



부산 홍법사에서 8월 22~23일 열린 제1회 동자승 가족 템플스테이에는 홍법사 동자승 출신 어린이 17명과 가족들이 참가했다.



주지 심산 스님은 "여러분은 우리 불교의 미래인 만큼 동자승 선배로서 공부, 효도, 생활태도 등 모든 면에서 책임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동자승 가족 템플스테이'에서는 영유아 수기대법회와 4~6세 동자승 단기출가, 마을상좌 수계법회 등 어린이·청소년 포교 프로그램의 범종단적 시행을 앞두고 가능성도 살폈다.

심산 스님은 "영유아 수기대법회를 통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불자'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동자승 단기출가 및 마을상좌 수계법회로 인생의 고비마다 스님과 절에 의지할 수 있게 유도한다면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 법회라는 회두만 안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수기법회의 당위성이나 동자승 단기출가의 가치, 그리고 마을 상좌의 소중한 인연을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신형의 불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홍법사는 그동안 대웅전 불사 등으로 중단됐던 동자승 단기출가를 1년 2~3회 실시하고, 동자승 가족 템플스테이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한편, 홍법사는 지난 4월 대웅전 불사를 회향하고 적극적인 수행·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지원 기자

### 언어예술제 개최

#### 10월 경주에서 열려

이슬우화의 재미를 뛰어넘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릴 불교 동화를 위주로 한 언어예술제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린다.

제5회 사단법인 동련 언어예술제는 조계종 포교원과 동련이 주최하고, 동련 동화구연회와 한국불교아동교육연구소 주관으로 10월 25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상관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동화 구연(동화를 여러 가지 목소리와 얼굴표정, 몸짓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 연극, 인형극, 뮤지컬 부문으로 나뉘어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남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박지원 기자

## “찬불가는 구절구절이 모두 법문”

### 우리지역 부부니혼자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신임회장 김윤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부산 지역 불교합창단을 이끈다니, 정말 부담스럽고 큰 자리에요. 저를 뽑아주신 여러 합창단장님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4일 취임식을 앞둔 부산 불교합창단연합회 김윤순(52, 대법심) 신임회장은 “부산지역에는 40여 사찰 및 불교합창단이 있지만, 연합회에 가입된 곳은 25개에 불과하다”며 “숨어있는 여러 합창단을 발굴해 화합을 도모하고, 다함께 모여 더욱 여법하게 음성공양을 올리도록 발 벗고 뛰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범어사 금강암 금소리합창단장으로 4년간 합창단을 성공리에 이끌어 왔다. 김윤순 회장은 음악을 전공하지도, 다른 합창단을 지도해본 적도 없지만 그저 음악을 사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길 좋아하는 평범한 불자였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우연히 선배 언니를 따라 금강암을 찾은 것을 인연으로, 12년 전 금소리합창단 창단 때 단원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절에 가도 조용히 뒷자리에 숨어서 조용히 기도하고, 법회가 끝나면 누가 알아볼까봐 부끄러워서 얼른 내려갔어요.”

수줍음 많고 소극적이던 그녀를 세상 밖으로 이끈 것은 찬불가였다. 합창이란 장르는 어느 한 사람만 빼어나게 노래를 잘 해서 소용이 없다. 모두의 음성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듣는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소극적이던 김 회장이 여러 합창단원 도반들 속에서 남과 소

통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웠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법당 뒤편에 숨어있던 이름 모를 보살은 합창단장이 됐다.

“어린 일인데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금방 실천이 안 되고, 말로 끊임없이 되새겨야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도 똑같아요. 부처님 말씀이나 스님의 법문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법문 중에 조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찬불가는 부도보면 너무나도 달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죠. 찬불가는 가사 구절구절이 모두가 법문이거든요.”

김윤순 회장은 “찬불가는 대중가요나 가곡 등 다른 장르의 음악보다 몸에 빨리 와 닿는다”고 말한다. 모든 찬불가는 스님의 법문과 똑같아 노래를 부르는 순간순간이 공부고, 또 나눔이기 때문.

누구보다 찬불가 속 불법 배우기를 좋아하고, 또 음성공양을 귀하게 여기는 김 회장이기에 이번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장으로서 보낼 2년의 임기는 더욱 절실하다.

“오는 12월에 전국불교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우선은 이 대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이란 직함이 부끄러울 만큼 자격도 없고 단지 '부처님'으로 맡았는데요. 예전의 저처럼 부끄러워 마음속으로만 노래하는 분들도 조금만 용기를 내신다면 아마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합창단을 권유할 만큼 용기가 생길 겁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051) 867-0501

박지원 기자

## 북한이탈주민 위한 여름캠프 개최

###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29~30일 통영에서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봉)은 8월 29~30일 통영에서 '새터민 가족관계개선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새터민은 북한이탈주민을 일컫는다. 현재 부산에는 600~800여 새터민이 거주하며, 그 중 약 28%에 해당하는 180여 명이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사하구에 거주 중이다.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진행중인 새터민지원 행사 모습

이번 행사에는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새터민 정신건강지원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새터민과 그 가족 3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수상안전교육, 공동체 향배훈련, 바나나보트, 플라피쉬, 모터보트, Fun수영, 레크리에

이션, 케이בל탑 등 가족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박준우 사회복지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2~3개국을 거쳐 탈북하는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부담과 압박감, 자본주의 사회의 부처는 문제 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동안 해보지 못한 새로운 레포츠에 도전하고, 자연 속에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마을의 여유를 되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이 외에도 사하구에 정착한 지 6개월 미만의 새터민에게 주택계약, 기초생활급여 등을 돕는 '정착도움미지원사업'과 1년 이상 거주한 새터민에게 문화체험의 폭을 넓혀주는 '정주도움미사업',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회복을 위한 '정신건강지원사업' 등 단계별 새터민후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051)264-9033

박지원 기자

## 불교문화연구원 설립 초읽기

### 29일 문수당에서 기념학술세미나 개최

부산 지역 최초의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산)는 8월 29일 부산 동명불원 문수당에서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 추진발기인대회'를 열고, 기념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문화콘텐츠연구원은 불교문화를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세워진다.

부산지역 불교계는 연구원이 설립되면 전통적인 불교문화의 문화산업적 활용방안 연구와 경쟁력 있는 불교문화상품이 개발돼 사찰 및 사회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발기인대회에는 설립추진위원장 정산 스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추진위원 소개, 추후 활동 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사찰음식의 가치와 대중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기념학술세

미나에는 홍승 스님(사찰음식연구회장)과 '사찰음식의 대중적 보급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또, 이을상 교수(동대 문화콘텐츠연구소)와 정영숙 원장(약초양념연구원)은 각각 '사찰음식의 생태·철학적 고찰'과 '한국약선요리- 밥상이 약상'을 발표했다.

학술발표 후 동명불원 대웅전 앞 마당에서는 홍승 스님이 직접 요리하며 다채로운 사찰음식을 선보인 사찰음식 시식회가 열렸다.

정산 스님은 "우리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그 안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바로 문화콘텐츠"라며 "우수한 불교문화인재를 발굴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산업화해 불교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626-4337

박지원 기자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많고 불경기에도 흥망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힘든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홍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타,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인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신제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자동차용호신불

###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볼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 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이 직접 전쟁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쟁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병을 지키는 호신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 사고예방의 선물 차량구입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른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호신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 영험의 구슬



## 보궁여의주

###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요. 어머니는

### 시험을 보면 꼭 1~2점자로 낙방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목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 세을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

점자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 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력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